

“공중사리탑 국가문화재 지정해야”

‘낙산사 화재 4주년 회고와 전망’ 포럼서 정영호 관장 주장

2005년 4월 5일 식목일, 강원 양양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천년고찰 낙산사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원통보전 등 20여 채의 건물이 전소됐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에서도 낙산사를 지켰던 세조대왕이 조성한 동종(보물 제479호)은 처참히 녹아내렸다.

그로부터 4년, 낙산사는 국민적 관심과 지지 속에 새로 건물이 세워지고 나무가 심어졌다. 복원 과정에서 부처님 진신사리가 발견되면 공중사리탑이 새롭게 조영된 것을 비롯해 조선시대 유구가 발굴됐다. 화마를 이겨낸 천년고찰 낙산사는 김홍도 그림을 근거로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며 새 천년을 바라보고 있다.

양양 낙산사주지 정병는 4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낙산사 화재 4주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낙산사 소장문화재를 학술적으로 조망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 미술사학계의 원로 정영호 단국대박물관장을 비롯해 김상현·김장군 교수(동국대), 박상국 문화재위원, 조효숙 교수(경원대), 윤열수 가회박물관장 등이 발표했다.

정영호 단국대박물관장은 기조강연 ‘낙산사 공중사리탑의 사리장엄’에서 “낙산사 공중사리탑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해 국가적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관장은 “낙산사 공중사리탑은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오래전부터 기울어져 있었다. 일찍이 스승 황수영 박사(동국대)도 1953년 공중사리탑을 찾았을 때, 탑이 쓰러진 모습을 도굴배들의 만행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낙산사 한편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공중사리탑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공교롭게도 산불 때문이었다.

정영호 관장은 “공중사리탑 사리장엄은 화마 때문에 발견됐다”며 산불의 영향으로 각부 석재의 손상을 복원하고 탑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해체했던 과정을 설명했다.

2006년 4월 28일 오전 9시 30분경, 보수 중이던 공중사리탑 탑신석



상면 중앙의 원형 사리공(직경 23cm, 길이 17cm)에서 부처님사리로 추정되는 사리장엄이 발견됐다. 사리장엄은 노란색 비단 보자기에 싸인 원형의 청동함 내에 4점의 노란색, 푸른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의 비단으로 싸여 있었다. 그 안에는 연분홍색 비단 3매로 빈틈없이 에워싼 가운데 모서진 원형 은제함이 놓여 있었다. 은제함 안에는 2점의 푸르고 누런 색의 길상문과 만(卍)자 등 갖가지 무늬를 장식한 비단에 싸인 금제함을 4쪽지의 다라니가 보호하고 있었다. 금제함 안에는 색동비단 1점에 싸인 자주색 사리호가 있어, 부처님 진신사리 1과를 흰색 명주솜 보로 위에 봉안했다.

공중사리탑에서는 원형 청동함과 은제함, 금제함을 비롯해 각각의 함을 싸왔던 비단 보자기 8점, 다라니 19장과 불탑봉안문 4장 등 20여 점의 문화재가 발견됐다.

정 관장은 “공중사리탑의 사리는 신라시대부터 봉안된 부처님 진신사리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공중사리탑에서 발견된 사리가 진신사리만의 고유한 빛깔을 갖고 있고, 진신사리가 아니라면 둥근 형태의 큰 사리공에 모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다.

진신사리는 1959년 팔공산 송림사5층석탑, 1966년 황룡사 9층목탑과 불국사 석가탑, 1970년대 월정사 8각9층석탑과 무량사5층석탑, 도리사 세존사리탑 등에서 발견됐다.



4월 10일 ‘낙산사 화재 4주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낙산사 공중사리탑의 사리장엄을 발표한 정영호 관장(왼쪽 위)과 낙산사 공중사리탑(왼쪽 아래). 오른쪽은 주지 정병스님이 2006년 4월 사리장엄구출을 공개한 모습.

정영호 관장은 “공중사리탑에서 발견된 사리는 이제껏 보아온 진신사리와 같은 빛깔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정 관장은 “둥근 형태의 큰 사리공은 사리장엄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스님 중에 큰 사리공을 갖춘 것은 양양 진전사의 조계종 종조 도의 국사 부도가 유일하다. 이 또한 네모꼴”이라고 설명했다.

‘공중사리탑’이란 이름은 흥련암 인근 ‘해수관음공중사리탑’이라 지칭된 2.15m 높이의 탑에서 유래했다. 공중사리탑의 청동함에서 봉안된 것은 “강희삼십일년(1692)인문에는 ‘공중사리탑’이라 하며 탑의 조성시기를 숙종18년(1692)으로 기록했다. 탑비의 조성연대는 숙종20년(1694), 사리를 모신 때는 숙종9년(1683) 등 봉안기의 내용과 일치된다.

탑비에는 “흥련암에서 개굴불사를 모실 때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 차더니 공중에서 영롱한 구슬이 떨어졌다. 유리처럼 광채를 냈던 구슬을 수습해 탑을 쌓고 봉안했다”고 적었다.

정영호 관장은 “의상대와 망망 동해를 굽어보는 대지에 건립된 사리탑을 ‘공중사리탑’이라 부른 이유는 석비에 따르면”며 “숙종18년(1692) 조성된 것이 확실한 사리탑은 탑신석이 원구형인 것을 볼 때 신라 이후 고려, 조선초기 등 특수형태를 갖는다”고 말했다.

선산 도리사 세존사리탑처럼 신라시대의 부처님 사리를 후대에 이르러 다시 사리탑을 건조하고 모시

는 예는 있어도, 공중사리탑처럼 온전한 사리장엄을 갖추고 건립의 절대연대까지 알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정 관장은 “사리탑 건립의 절대연대가 분명하고 탑신 각부의 건조양식과 조각수업이 뛰어난 당시의 석조건축물을 대표할만하다”며 “사리탑과 사리장엄을 비롯해 함께 발견된 보자기, 보로 등 비단 견직물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보존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효숙 교수는 주제발표 ‘낙산사 공중사리탑 복장지물의 조형성 연구’에서 “청동함부터 사리호까지 짠 보자기 일체가 발견된 경우가 드문데 공중사리탑은 사리장엄구출 짠 보자기 8장의 상태가 모두 양호하다”며 “특히 사리호를 짠 겨자무늬 보자기는 여러 층으로 짠 중조직으로서는 처음 발견돼 직물사 연구에 소중한 자료”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공중사리탑에서 발견된 직물유물들을 재현, 낙산사의 문화콘텐츠 자료로 활용해 문화상품을 만들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상현 교수는 ‘낙산사의 문화사적 위치’를, 박상국 문화재위원은 ‘낙산사 공중사리탑의 사리신앙과 봉안문서’를, 김장군 교수는 ‘낙산사 공중사리탑 내 발견된 사리장엄구에 대한 고찰’을, 윤열수 가회박물관장은 ‘그림속에 나타난 낙산사’를 발표했다.

조동성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 생멸적 사유체계 지닌 기호철학”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불타관 재조명’ 세미나

“부처님은 법마저도 환(幻, 허깨비)으로 강조한 최초의 성인이다.”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원장 미산)은 4월 15일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불타관의 재조명’을 주제로 제1회 불교학연구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미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자들에게 부처님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며 신앙의 대상”이라며 “부처님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해 불타의 참모습을 재조명하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김형호 명예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사건)는 기조발제 ‘불타관’에서 “부처님은 법과 존재마저도 환(幻)으로 보았으며, 불교는 생멸적 사유 체계를 지닌 기호철학”이라고 강조했다.

불타와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와 예수는 인류의 5대 성자로 불린다.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학문을 통해 인류의 빛을 밝히고자 했고, 예수는 불변한 영원의 진리를 신앙의 길로 제시하고자 했다. 불타와 노자는 학문과 신앙은 물론, 진리를 터득한다는 개념조차 없었다.

김 명예교수는 “학문과 신앙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접할 수 있는 제한적 방법”이라며 “진리를 강조하는



4월 15일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김형호 명예교수는 ‘불타관’을 강연했다.

개념조차 없던 불타의 사상은 진리에 대한 분별조차 떠난 것”이라 설명했다.

진리와 반진리의 명제에서 진리의 편을 선택하는 자에게 치중했던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는 진리의 빛과 반진리의 어둠의 대립을 낳았다.

김형호 명예교수는 “인류의 빛은 특별히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빛이 바로 인류의 빛”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세상의 창조를 강조했던 예는 성자와 달리 불타는 이미 짜여진 세상 자체가 완전하며 증생의 무명(無明)만을 문제 삼았다.

김 명예교수는 “불타는 절대 새로운 세상의 창조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가치론에 치중했던 다른 성자들

과 달리 불타는 ‘있는 그대로’를 전한 사실론자”라고 설명했다.

불타가 설한 사성제, 팔정도 등 모든 교설은 증생에게 ‘있는 그대로’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김형호 명예교수는 불타의 사상은 반개념적이고, 반명사론적이고, 반실체론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명예교수는 “불타는 우주의 본모습에 가까워지려면 소유와 자의식을 버리는 ‘공(空)함의 자유’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형호 명예교수는 “구름이 자연과의 교화작용에서 생겨나듯이 삼라만상이 환(幻)으로 인연연기 화합의 결과일 뿐이다. 자기 의미를 실체로 지닌 개념에서 탈피하지 못했던 가치론적인 서양철학과 달리 불타는 존재자 중심의 사고를 탈피한 사실론적인 가르침을 설했다”며 “개념철학적인 서양철학과 달리 불교는 기호철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덕 스님(중앙승가대)이 ‘보광사에서의 불타관’을, 본각 스님(중앙승가대)이 ‘화엄경에 나타난 불타관’을, 허일범 교수(진각대)가 ‘밀교에서의 불타관’을, 이주형 교수(서울대)가 ‘불교 미술사에서의 불타관’을 발표했다.

조동성 기자

‘고려불교의 위상’ 세미나

불교학연구회 5월 9일 개최

불교학연구회(회장 분각)는 5월 9일 10시부터 숙명여대 수련교수회관 101호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아시아에서 고려불교의 위상”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최병현 서울대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김병홍 교수(충남대)가 ‘지눌 선사상 형성에 미친 중국불교의 영향’을, 이병욱 교수(고려대)가 ‘단연과 의천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김현희 교수(금강대)가 ‘균여의 <화엄보관기>의 종성론에 대한 이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논평은 최연식 교수(목포대) 박재현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 김정희 교수(서울대) 최동순 교수(동국대) 조윤호 교수(전남대) 석길갑 교수(금강대) 김상영 교수(중앙승가대) 박윤진 교수(고려대)가 참여한다.

본각 스님은 “지눌, 의천 등 고려시대 대표적 사상가를 중국·일본의 사상가와 비교해 고려불교의 특징을 구해보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01) 5501-5589

조동성 기자

보광사 재조명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백용성 스님의 수행처였던 보광사와 도솔암의 역사적 의미와 유적지 복원 방향 모색을 위한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4월 25일 오후 1시, 파주 보광사에서 ‘백용성 스님과 보광사 도솔암의 사적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보광 스님(동국대)이 ‘백용성 스님의 초기수행과 보광사 도솔암의 인연’을, 황인규 교수(동국대)가 ‘보광사 도솔암의 사적 역할’을, 김광식 교수(부천대)가 ‘백용성의 유적지 복원과 도솔암의 미래’ 등을 발표한다. (02)581-3137

조동성 기자

무혈, 무통, 무약, 무수술!! 세계최강 최고수 活人秘法 전수교육안내



[장한빛 仙師]
독일 East West Alternative 메디칼센터 특수침술교육 앙동 난치병 공동연구 중국연변대학교 중의학원 객좌교수 동이대학교 대체의학부서 최고위과정 교수겸임
에라게 찾았던 숨은 영의 50인 선정 세종문화회관 건원선생터 특별강연
“암 정복의 길이 보인다”
“아, 이제 나는 살았구나!” 등 7권의 건강서적 집필

- 23년이란 오랜 세월 속에서 마침내 다이아몬드를 찾아냈습니다. 의학의 본고장 독일에서(EastWest Alternative medical center) 세계최강, 최고수 의술임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제는 5000년 단군역사 이래 東西洋의 의학교과서를 새로써야 할 때입니다.
- 그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분야별 최고수(선지식)들을 만나 醫道와 仁術을 깨우쳤고,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수백 명에 달하는 말기암환자와 난치성희귀병(파킨슨, 아토피, 간질, 치매 등) 환자를 상대로 고귀한 임상체험을 통해 생명 살리는 비법을 축적하였습니다.
- 群盲撫象이요 管中覬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만의 잣대로 虛空을 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最高手라고 생각되어 한수 배우려고 찾아갔다가 돈과 시간만 허비한 채, 패싹하고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오던 씁쓸한 지난시간들이 생깁니다. 이제는 名實공히 세계와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최상의 活人기술임을 세상에 알리고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수해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기간동안 각자가 모시고온 환자를(어떠한 난치, 고질, 희귀병 환자도 관계없음) 대상으로 實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최단기간 내 완벽한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 ◆Triple combination therapy (三正요법)
1)正骨整體 : 척추뼈와 골반뼈의 변형이 만병의 根源
2)正血清血 : 전신의피가맑아야 無病長壽 (15개연못론)
3)正氣(通經活絡) : 전신의 氣가 疏通해야 無病長壽 (氣塞則死)

교육장소 : 강화도 한빛 修練院
교육기간 : 5월 4일 ~ 5월 9일 [5박 6일]
전수교육 안내 032)937-7356 / 010) 5721-2266 전국대표 1588-7638

주최 : 제 3의학재단 설립 추진 위원회
후원 : 한빛헬빙건강 창업 지원센터 (피부, 비만, 통증) 한빛헬빙건강문화원 (전국지역별 센터설립문의)

- 내과적영역 초, 중, 말기암, 갑상선, 이명, 난청, 중이염, 약시, 백내장, 치주염, 아토피등 악성피부병, 다한증, 비염, 축농증, 대상포진, 간질, 뇌경색, 치매, 불면증, 간경화, 간염, 역류성식도염, 위궤양, 수면무호흡증, 심한코골이, 심근경색, 협심증, 폐질환, 악성변비, 비만, 투석전신장병, 고혈압, 당뇨, 전립선, 요실금, 자궁근종, 물혹(파킨슨, 루게릭은 임상중)

※ 10년~20년 이상된 각종 난치고질병이 5회~10회의 시술로 사라집니다.

- 외과적영역 목, 허리디스크, 안면마비, 두통, 현운, 삼차신경통, 좌골신경통, 골반통, 어깨결림, 오십견, 수족마비, 척추관협착증, 강직성척추염, 3,4기골다공증, 하지무력증, 통풍, 류마티스, 퇴행성무릎관절염, 중풍후유증, 뇌성마비, 체머리증, 족저통, 수전증, 교통사고후유증 등 모든 종류의 통증질환

※ 10년~20년 이상된 통증이 5분 1회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즉시 90%이상 사라집니다.

●참가대상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한방 의료관계자(통증클리닉,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등 의료인상담환영) 물리치료사, 중의사, 침, 뜸, 부항사혈요법사, 수기치료사(지압, 카이로프랙틱, 추나요법)등 재야의료인,灸치료사, 스님, 목사님, 각종수련원, 단식원운영자 각종 의료기호보관 운영자등 웰빙 건강사업 중사자나 관심이 있는 일반인 모두 환영합니다.